

GWANGJU F.C INFORMATION

Round	경기 날짜	시간	상대팀
1	3월 05일(토)	15:00	대구
4	4월 02일(토)	15:00	포항
5	4월 09일(토)	15:00	상주
리그컵3	4월 20일(수)	19:00	전남
7	4월 24일(일)	15:00	서울
8	5월 01일(일)	15:00	대전
리그컵5	5월 11일(수)	19:00	울산
11	5월 22일(일)	15:00	인천
13	6월 11일(토)	19:00	성남
14	6월 18일(토)	19:00	전남
17	7월 09일(토)	19:00	강원
18	7월 16일(토)	19:00	전북
20	8월 06일(토)	19:00	경남
23	8월 27일(토)	19:00	제주
26	9월 25일(일)	15:00	부산
27	10월 02일(일)	15:00	울산
29	10월 23일(일)	15:00	수원

광주FC

2011 리그 시즌권 판매

회원권 가격안내

- ▶ 일반인(E·W식) : 어른 10만원 / 청소년 5만원 / 어린이 3만원 / 홈경기 모든 게임
- ▶ 서포터즈(N식) : 어른 6만원 / 청소년 4만원 / 어린이 2만원 / 홈경기 모든 게임

회원권 구매안내

- ▶ 온라인 : www.ticketlink.co.kr (신용카드 및 무통장 거래 / 24시간 운영)
- ▶ 오프라인 : 광주FC사무국, 광주FC 각 매표소 (신용카드 및 현금 구입 / 평일 09시~18시 운영)

무료제공 혜택

- ▶ 어른 : 유니폼·리플렛카드(패밀리카드 혜택 포함) 제공
- ▶ 청소년·서포터즈 : 조마 티셔츠·리플렛카드(패밀리카드 혜택 포함) 제공
- ▶ 어린이 : 조마 티셔츠·구단사인볼·짐백 제공

All for one 2011

빛고을

광주FC서포터즈

광주FC 공식 서포터즈 빛고을에서 승리의 순간을 함께 즐길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원정경기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바랍니다.
www.gwangjufc.co.kr





GWANGJU F.C

VIEW

통권 제06호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 11라운드

2011. 05. 22 SUN 15:00 KICK OFF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FC vs 인천 유나이티드

GWANGJU F.C Matchday Program 2011 VIEW-No.06 ○ 발행일 : 2011년 5월 22일 ○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내 프레스센터 2층 ☎ 062-373-7733



POINT of VIEW

관전 포인트 광주FC vs 인천 유나이티드FC

광주FC 인천 누르고 중위권 도약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승부 남은 건 정규리그 뿐 선수단 승리의지 불태워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광주광역시**

 **우리금융그룹 KJB 광주은행**

 **광주신세계**
www.shinsegae.com

 **행복드림 롯데마트**

 **LOTTE 광주월드컵점**

 **Joma**

 **중흥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南光建設**

 **KIA 기아자동차**
The Power to Surprise™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오비맥주**
Oriental Brew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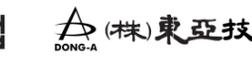
 **보해양조(주)**

 **Coca-Cola**

 **Kika**

 **광주 21세기병원**

 **해모수 휘트니스 클럽**

 **(株) 東亞技術公社**
DONG-A

 **남영건설**

 **백운안과 21병원**

 **LOTTE CINEMA**
HAPPY MEMORIES

 **청연한방병원**

 **삼성영어**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062)606-2500

함께해요 환경사랑 greenLOTTE



40%

빈 플
액세서리/여름상품 다양입하(4/20~)



50%~30%

MCM
이월상품 다양입하



40%

KUHO 구호



30%~40%

DAKS 닥스(남/여)

광주 선수단이 중위권 도약을 위한 승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FC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11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광주는 18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FA컵에서 수원시청에 2-1로 석패했다. 전반전을 팽팽한 접전 속에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 들어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첫 골은 수원시청의 몫이었다. 후반 3분 페널티지역 혼전 속에 박종찬이 타닝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광주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발빠른 중앙파울로의 현란한 드리블이 나왔고, 박 현의 코너킥이 수비 뒷 공간을 파고들던 유중현의 머리에 정확하게 걸려들며 수원시청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광주는 미드필드 진영에서부터 차분히 찬스를 만들어 갔지만 골문이 따라 주지 않았다. 박기동, 김동섭, 중앙 파울로, 박 현, 김은선 등이 수차례 맹공을 퍼부었지만 크로스바를 맞추거나 골대를 약간 빗나갔다. 그리고 연장 후반 6분 페널티지역에서 파울을 범하며 결국 무릎을 꿇었다. 선수들은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19일 오전 회복 훈련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최만희 감독은 "신생팀의 장점은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다. 체력이나 분위기도 금세 돌아온다"며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쳤고 앞으로 팬들의 뜨거운 응원만큼 더욱 노력해 이기는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승부수 띄우는 광주

광주와 인천은 나란히 승점 13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가 골득실에서 뒤지며 한 계단 아래인 11위에 기록돼 있다.

최근 4경기 전력을 보면 광주는 3승1패, 인천은 2승1무1패다. 중위권 진입을 놓고 양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먼저 광주는 주전 공격수들의 골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공격 자원이 탄생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박기동, 김동섭의 침묵 속에 중앙파울로가 살아났고, 중앙 파울로가 주축하니 김동섭이 감각을 되살렸다. 그리고 프로 데뷔와 함께 수비수로 전향한 유중현 선수가 홈에서만 2골을 기록 중이다.

반면 인천은 주전 공격수 유병수가 빠진 가운데 유준수, 김재웅 등을 투입 했지만 쉽게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양팀의 성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주는 무승부 경기가 1차례 뿐이지만 인천은 4경기에 달한다는 점이다.

광주의 경기는 갈수록 뜨겁다. 팀이 선제골을 넣으면 최선의 방어 속에 역습 찬스를 만들어 가며 승리를 지킨다. 무승부 스코어에서 미드필드 진영의 선수들까지 총공세를 펼쳐 역전승을 거두거나 패한다.

반면 인천은 명쾌하지 않다. 선제골을 넣고도 수비불안으로 항상 실점위기에 놓인다. 실제 인천의 무실점 경기는 2라운드 제주와 10라운드 부산전이 유일하다. 이 모두 0-0 경기였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승부수를 띄울 전망이다. 먼저 인천의 수비 불안과 미드필더의 집중력 부족을 노린다. 인천

수비의 중심인 배효성은 이번 경기에 경고누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정인환과 이윤표, 디에고 등이 뒷문을 책임져야 하지만 미드필드 자원이 부족해 수비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원에 위치한 카파제의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풀어가지만 미드필더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홈에서 강한 광주 vs 공부하는 인천

광주는 홈경기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3승1무1패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서울과 초반돌풍 대전을 각각 무릎 꿇리며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다.

특히 지난 10라운드 강원 전에서는 정규리그 원정 첫 승리를 장식하며 정규리그 빠른 적응과 뒤처지지 않는 성적을 내고 있다. 광주는 지난 FA컵에서 모든 자원을 몰가동하며 승리에 대한 욕심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패했고, 선수들에게 인천 전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훈을 심어줬다.

인천은 광주에 승리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인천은 FA컵에서 배효성을 제외한 채 경기를 풀어나갔다. 광주 전에 뒤지 못하는 배효성을 빼고 실전 연습을 한 것이다. FA컵 연세대를 마친 허정무 감독은 "정규리그 중위권 팀에게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세대가 아닌 광주 경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K리그 10라운드를 마친 현재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경기의 승패에 따라 두팀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011 GWANGJU F.C MEMBERS

광주FC 선수단 소개

 감독 최만희 1958.8.21/중남대 수원 2군감독(05~10)	 수석코치 여범규 1952.6.24/연세대 울산현대 감독	 수석코치 김정수 1975.1.17/중앙대 용인시청 수석코치	 공격코치 남기일 1974.8.17/경희대 천안시청 코치(09~10)	 전력분석 홍문기 1966.7.2/광운대 가요이 고등학교 감독	 트레이너 추원호 1968.12.24/연세대 대한트레이너협 정회원	 트레이너 박성필 1977.3.15/울지대 대한트레이너협 정회원	 주치의 이준영 1970.7.15/조선대 교수 조선대 정형외과학교실	 1 박호진·GK 1976.10.22/190cm/85kg 연세대
 2 정우인·DF 1988.2.1/185cm/76kg 경희대	 3 박병주·DF 1985.3.24/185cm/79kg 단국대	 4 이웅·DF 1989.1.21/187cm/79kg 고려대	 5 임승영·MF 1988.3.21/185cm/77kg 수원대	 6 김은선·MF 1988.3.30/181cm/77kg 대우대	 7 이승기·MF 1988.6.2/177cm/67kg 울산대	 8 안동혁·MF 1988.11.11/176cm/74kg 광운대	 9 김동섭·FW 1989.3.29/187cm/78kg 정문고	 10 박기동·FW 1988.11.1/191cm/83kg 송실대
 11 조우진·MF 1987.7.7/177cm/70kg 포항고교	 13 김호남·FW 1989.6.14/178cm/73kg 광주대	 14 유동민·FW 1989.3.27/191cm/91kg 조양대	 15 유종현·DF 1988.3.14/196cm/92kg 건국대	 16 김성민·FW 1987.5.11/185cm/75kg 화남대	 17 박현·MF 1988.9.24/175cm/69kg 인천대	 18 김홍일·MF 1987.9.29/178cm/72kg 연세대	 19 박학성·MF 1987.4.7/170cm/68kg 화남대	 20 고은성·DF 1988.6.23/174cm/73kg 단국대
 21 조상준·GK 1988.7.24/187cm/85kg 대우대	 22 김수범·DF 1990.10.2/176cm/68kg 상지대	 23 박성화·MF 1988.8.23/176cm/71kg 조선대	 24 박오한·DF 1989.1.16/177cm/73kg 연세대	 25 김상민·FW 1985.4.19/175cm/70kg 고려대	 26 노항식·DF 1988.11.17/186cm/80kg 동국대	 27 임하람·DF 1990.11.18/186cm/87kg 연세대	 28 윤광복·MF 1989.1.25/180cm/74kg 조선대	 30 김성민·FW 1990.9.27/181cm/73kg 전남과학대
 31 허재원·MF 1984.7.1/188cm/81kg 광운대	 32 박상현·MF 1987.2.11/175cm/68kg 고려대	 33 성경모·GK 1980.6.26/183cm/85kg 동명대	 34 안상남·DF 1984.4.17/172cm/68kg 중앙대	 35 이재찬·MF 1987.7.26/178cm/69kg 조선대	 36 로페즈·FW 1988.1.29/184cm/79kg 브라질	 37 주상우·FW 1988.6.2/188cm/69kg 브라질	 38 윤민호·MF 1987.1.21/177cm/73kg 강릉시청	

“언제나 파워풀한 경기를 하고 싶어요”



INTERVIEW

인터뷰 광주FC·유종현 선수

광주의 골 넣는 수비수 '검은 비디치' 유종현... 우월한 신체조건·강한 킥력 겸비 숨은 보배

“프로에 데뷔한 뒤 헤딩 골 재미에 푹 빠졌어요.”

광주에는 검은 비디치, 유류바라는 별칭을 가진 선수가 있다. 바로 거침없는 스타일의 소유자 유종현이다. 그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11라운드 인천과의 경기를 앞두고 “그 누구에게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당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18일 수원시청과의 FA컵 32강전에서 후반 13분 멋진 헤딩골을 성공시킨 유종현은 “전날 평평 우는 꿈을 꿔다. 일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좋은 일이 있을 징조라고 하더라”면서 “첫 골을 넣을 때도 박힌 선수가 코너리를 올려줬는데 좋은 노

김이 왔다”고 귀띔했다.

사실 유종현은 건국대 시절까지만 해도 강한 킥 능력을 지닌 공격수였다. 좋아하는 선수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드로그바다.

그는 “유류축구 시창을 즐겨하는 편인데 드로그바가 리버풀전에서 상대편 수비수를 따돌리고 골을 넣는 영상을 보고 한 눈에 반해버렸다”며 “지금은 강한 수비를 하면서도 골 넣는 능력까지 겸비한 비디치를 본받고 싶다”고 했다.

공격수에 대한 미련을 묻자 “능력의 활용도는 감독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이전 수비가 더 좋다. 하지만 언제든지 공격수로 뛴 준비도 돼있다”며 “공격수의 입장에서 수비할 수 있다는 점도 나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배들을 상대로 한 몸싸움에 대해서는 “축구에서는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라운드에선 경쟁 상대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선배들 동료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인천전을 앞두고 선수들 모두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테니 뜨거운 응원 부탁한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 필

유종현 Yoo Jong Hyun
등번호 No. 15
생년월일 1988년 03월 14일
포지션 FW(포워드)
체중 92kg
신장 196cm
출신교 건국대학교



NEWS 구단 뉴스



광주 김동섭 올림픽축구대표팀 발탁 오는 30일 강릉서 소집...1일 오만과 평가전

홍명보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광주의 황태자 김동섭을 호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오만과의 올림픽대표팀 평가전(6월 1일 오후 7시 강릉종합경기장)에 참가할 선수 명단 23명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김동섭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중국과의 평가전에 이은 두 번째 부름이다. 일본 J-리그 시미즈에서 뛰다가 올 시즌 광주로 돌아온 김동섭은 정규리그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의 초반

돌풍을 이끌어 갔다.

홍명보 감독은 그런 그에게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뛴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김동섭은 전반 12분 정동호의 크로스를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만들었다. 홍 감독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집중건제와 전 북전 패배터키 실축, 부상에 따른 결장, 골 침묵 등 악재가 겹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왔다.

김동섭은 그때마다 훈련에 집중했고, 정규리그 10라운드 강원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다시 한 번 골사냥에 나서고 있다.

화려한 부활을 노리는 김동섭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많은 게 달라졌다. 마음이 편하고 축구가 너무 재미있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골을 넣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명예기자의 경기 분석



광주FC 박양태 명예기자

안정세를 이어가는 광주 FC 문제는 강행군 속 체력 회복

광주FC가 20여일만에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정규리그 6번째 홈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리그 원정에서 1승4패로 승률이 낮지만 홈에서 만큼은 3승1무1패로 꽤 괜찮다. 리그 홈경기 3연승과 리그 2연승을 바라보는 선수들에게 이번 경기는 확실히 좋은 환경이다.

광주에게도 약점이 있다. 지난 18일 수원시청과의 FA컵 32강에서 경기에서 1:2로 분패하며 탈락했다. 문제는 경기결과보다 우리 선수들의 체력이다. 광주는 당시 경기에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다. 교

체선수를 포함한다면 거의 베스트 멤버가 총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박기동과 정우인, 김은선, 유종현은 풀타임 출장했다. 이후 이승기와 김동섭도 교체돼 연장 후반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선수들의 체력회복 문제가 인천과의 경기에서 주요 변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물론 주전 선수 모두가 투입된 건 아니다. 박병주와 이용, 허재원은 FA컵에 결장하며 체력을 보충했다. 광주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인천의 분위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윤기원 선수의 비보가 있었으나 리그와 컵대회, FA컵을 포함해 네 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최근 6연승을

이어가고 있던 부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인천의 조직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다. 하지만 아직도 최전방 공격수지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먼저 에이스 유병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유준수와 루이지뉴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김재웅과 박준태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으나 완벽하지 않다. 게다가 김재웅은 캡틴 배효성과 함께 광주전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

20여일만의 리그 홈경기. 광주의 리그 홈경기 3연승을 위해서 다 같이 힘차게 선수들을 응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2년 광주-전남기원 중 여덟번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모든 금융활동이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역상품 판로 확대 등 밀착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